

일부 보건계열 대학생을 융합적으로 한 시험불안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윤성욱¹, 권연숙^{2*}

¹김천대학교 치위생학과, ²영남외국어대학 간호과

Relationship between test anxiety and self-esteem in partial health related department convergence College students

Sung-Uk Yoon¹, Youn-Suk Kwon^{2*}

¹Dept. of Dental hygiene, Gimcheon University

²Dept. of Nursing, Young Nam Foreign Language College

요약 최근 국내 대학은 융합형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학기 중 많은 시험을 감당해야 하는 보건계열 학생들에게 시험불안은 생리적 정신적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험불안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규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간호과, 치위생과 대학생 301명을 대상으로 시험불안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설문조사한 결과이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전체적인 평균은 2.98이며 남학생, 나이가 많은 경우, 고학년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시험 불안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불안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특성 및 시험불안감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남학생인 경우, 고학년인 경우, 본인이 선택한 경우 자아존중감이 높았으며, 시험 불안감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보다 나은 학문적 환경을 통해 시험불안을 낮추고 동시에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Key Words** : 융합교육, 보건계열, 대학생, 시험불안, 자아존중감

Abstract Recent domestic university has emerged need to convergence education. Health related department College students must deal with a lot of exams. The test anxiety can cause physiological and psychological problems.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est anxiety and self-esteem. This study Health related department College students conducted questionnaire survey of 301 students. In general the overall average is 2.98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self-esteem and gender, boys, if older, the older the more self-esteem was higher. Test anxiety of the general characteristics showed little higher this year. Test anxiety is higher self-esteem was low. The effect 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test anxiety self-esteem, in the case of boys, seniors, if I choose this self-esteem was higher, the higher the anxiety test were analyzed by low self-esteem. Therefore, need to a systematic curriculum approach and academic environment

• **Key Words** : convergence education, health related department, College Student, Test anxiety, Self-esteem

*교신저자 : 권연숙(christ815@hanmail.net)

접수일 2015년 9월 1일 수정일 2015년 10월 6일 게재확정일 2015년 10월 20일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융합적 교육이 대두되고 있는 현대사회는 개개인에게 다양한 능력과 이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이루기 위한 끊임없는 경쟁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 속에 청소년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20년 정도를 자기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학업 생활을 하고 있으며, 또한 성인이 되어도 취업준비, 자격 시험 등 지속적으로 시험을 치루면서 타인과의 경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1]. 대학생들은 사춘기의 성향이 그대로 남아있는 후기 청소년기에 속하여 여전히 심적으로 불안한 시기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학업, 진로, 취업, 새로운 환경 적응 등에 대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2]. 특히 대학생들은 아직 학업 중에 있는 시기로 타인보다 높은 학업성취를 위한 무한 경쟁 속에서 취업과 진로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을 잘 치루기 위한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시험에 대한 불안은 학생들에게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로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3]. 불안이라 함은 불길한 예감으로 인해 편안하지 않고 정서적으로 긴장되면서 불쾌함을 느끼는 감정적인 반응을 의미한다. 시험불안도 이런 불안의 한 형태라고 말 할 수 있으며 자신의 능력을 평가받는 특수한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정서적, 신체적, 행동적인 반응을 말한다[4]. 대학생들이 느끼는 시험에 대한 불안은 적절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긴장감을 유도하여 시험 준비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높은 시험불안은 학업성취와 관련된 여러 변수와 관련하여 학업에 대한 동기와 신념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5]. 과도한 시험불안은 교우관계가 위축되고, 우울증, 신경증, 자신감 저하, 열등감 등을 경험하여 정신건강과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며[6]. 두통과 소화불량 등 신체적인 증상을 경험하기도 한다[7]. 이런 시험불안은 단순히 학과 성적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시험실패 원인을 자신의 능력부족으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하는 자아개념 형성에 영향을 주어 학습부진학생인 경우에는 쉽게 좌절을 함으로서 학업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3]. 이런 시험불안 때문에 오는 우울, 신경증, 자신감 저하 등과 같은 부정적인 요인을 감소시키고 스트레스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완충작용을 하는 것으로 자아존중감을 들 수 있다[8]. 자아존중감은 인간의 행동과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자

신을 어느 정도 존중하고, 어느 정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서 자아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다[9].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에 비해 자신을 유능한 사람으로 여기고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능력이 높으며 스트레스 상황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한편 자기를 표현하는 능력이나, 자기확신, 잠재적인 지도력, 남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능력, 사회적인 기술, 실용적 지식이 높은 특성을 보인다[10]. 특히 간호과, 치위생과 학생들은 국가고시를 위한 많은 학습량을 감당해야 하며 이론과 임상실습을 병행한 교육과정과 그에 따른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담감이 적지 않은[3] 반면 보건계열 학과에서 국가고시 합격률은 학생뿐만 아니라 대학 교육성과에 있어서도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수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시험불안이나 자아존중감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시험불안을 종속변수로 한 중재연구[2,3,11]의 형태가 다수 보고되고 있으며 간호과 치위생과 등 보건계열 대학생을 융합적으로 한 시험불안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현실이다.

1.2 연구의 목적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과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험불안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간호과, 치위생과 학생들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시험불안과 자아존중감 간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다.
- 둘째, 시험불안 정도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분석한다.
- 셋째, 자아존중감에 일반적인 특성의 변수와 시험불안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4년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경북지역 일부대학에 간호과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총 310명을 대상으로 조사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조사

를 하였으며 이 중 불충분한 응답자 9부를 제외한 남학생 25명, 여학생 276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2.2 연구방법

설문조사는 선행연구[12,13]의 항목을 참조하여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대학생들의 특징에 부합되는 일반적인 특성 8문항, 시험불안 35문항, 자아존중감 10문항으로 조사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자기기입식 설문문항을 기재하였으며 본 연구의 전체적인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17$ 이었다.

2.3 연구도구

2.3.1 시험불안

시험불안 척도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느끼는 시험이나 평가적 상황에서 정서적, 생리적으로 느끼는 불안의 한 형태를 말한다. 본 연구는 Spielberger[14]의 시험불안검사(Test Anxiety Inventory: TAI)를 한국 학생실정에 맞게 김[15]이 개발한 TAI-K(Test Anxiety Inventory-Korea)을 사용하였다. 총 문항은 35문항으로 인지적 요인 15문항, 감정적 요인 15문항, 일반적 요인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의 시험불안도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58$ 이었다. 본 연구에서 시험불안의 점수분포는 '그렇다'를 '1'로 부여하고 '그렇지 않다'를 '0'로 부여하여 '그렇다'의 총 점수를 평균점수를 중심으로 하여 3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즉 시험불안도 전체적인 평균은 12점으로 분석되어 1-7점은 시험불안도가 낮은 단계, 3-15점은 보통단계, 16점 이상은 높은 단계로 구분하여 시험불안도를 나타냈다.

2.3.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인간의 행동 및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또는 긍정적 평가와 관련된 것으로 임[16]과 박[17]이 사용한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아존중감 척도는 부정적인 자아존중감 5문항,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5문항,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분포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로 Likert 4점 척도로 나타냈으며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자아존중감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95$ 이었다.

2.4 통계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WIN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시험불안감의 항목별 평균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test와 One-way ANOVA검증을 하였다. 일반적인 특성과 시험불안감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하였으며 검정을 위한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측정도구의 내적일관성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전체 301명으로 남성 25(8.3%)명 여성 276(91.7%)명으로 여성이 대부분이었다. 나이는 21-22세가 120(39.9%)명으로 많았으며 학과는 간호과 203(67.4%)명, 치위생과 98(32.6%)명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3학년이 116(38.6%)명으로 분포되었고 종교는 129(42.1%)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형태는 175(58.1%)명이 부모와 동거하고 있었으며 입학형태는 169(56.1%)명이 고등학교를 졸업 후 입학하였다. 학과에 입학한 동기는 214(71.1%)명이 본인의 선택으로 나타났다<Table 1>.

3.2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전체적인 평균은 2.98이며 성별로는 남학생이 3.16으로 여학생 2.96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p < .05$). 나이는 23세 이상에서 3.06으로 적은 나이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p < .05$). 학과에 대한 자아존중감은 간호과가 2.99. 치위생과가 2.97로 간호과가 다소 높았다. 학년은 3학년이 3.09로 가장 높았다 ($p < .05$). 종교의 유무와 거주형태, 입학형태는 큰 차이점이 없었다. 입학 동기는 본인의 선택이 3.03으로 가장 높았다($p < .05$)<Table 2>.

3.3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시험 불안감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시험 불안감의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3단계 중 높은 단계의 불안감을 기준으로 하였을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Characterization	Division	Frequency(N)	Percentage(%)
Gender	Men	25	8.3
	Female	276	91.7
Age	19-20	61	20.3
	21-22	120	39.9
	23-24	58	19.3
	24<	62	20.6
Subject of study	Nursing Department	203	67.4
	Dental Hygiene Department	98	32.6
Grade	Grade 1	94	31.2
	Grade 2	91	30.2
	Grade 3	116	38.6
Religion	Yes	129	42.9
	No	172	57.1
Housing type	Parent's home	175	58.1
	Dormitory(Someone else's house)	126	41.9
Admission type	After graduating from high school	169	56.1
	After Other school experience	48	5.9
	After Social life experience	84	27.9
Motivation of Choose the Department	Oneself intention	214	71.1
	Parents intention	37	12.3
	High employment rates	50	16.6

<Table 2> Self-Esteem and Test anxiety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zation	Division	Self-Esteem M±SD	F	P value	Test anxiety Percentage(%)			P value
					Low N(%)	Usually N(%)	High N(%)	
Gender	Men	3.16±0.51	5.808	0.017*	8(33.3)	9(37.5)	7(29.2)	0.756
	Female	2.96±0.36			83(31.8)	83(31.8)	95(36.4)	
Age	19-20	2.86±0.35	3.892	0.009**	10(18.9)	23(43.4)	20(37.7)	0.255
	21-22	2.96±0.37			37(32.5)	32(28.1)	45(39.5)	
	23-24	3.06±0.43			21(37.5)	18(32.1)	17(30.4)	
Subject of study	Nursing Science Department	2.99±0.41	0.186	0.667	56(29.0)	60(31.1)	77(39.9)	0.097
	Dental Hygiene Department	2.97±0.31			35(38.0)	32(34.8)	25(27.2)	
Grade 1	Grade 1	2.90±0.35	8.772	0.000***	16(19.0)	36(42.9)	32(38.1)	0.001**
	Grade 2	2.91±0.39			23(26.1)	28(31.8)	37(42.0)	
	Grade 3	3.09±0.37			52(46.0)	28(24.8)	33(29.2)	
Religion	Yes	2.96±0.33	0.427	0.514	35(28.7)	38(31.1)	49(40.2)	0.382
	No	2.99±0.41			56(34.4)	54(33.1)	53(32.5)	
Housing type	Parent's home	2.97±0.38	0.446	0.505	47(28.5)	53(32.1)	65(39.4)	0.237
	Dormitory(Someone else's house)	3.00±0.38			44(36.7)	39(32.5)	37(30.8)	
Admission type	After graduating from high school	2.97±0.40	0.494	0.603	47(30.1)	48(30.8)	61(39.1)	0.546
	After Other school experience	3.03±0.38			14(29.8)	15(31.9)	18(38.3)	
	After Social life experience	2.98±0.33			30(36.6)	29(35.4)	23(28.0)	
Motivation of Choose the Department	Oneself intention	3.03±0.39	7.050	0.001**	71(34.6)	65(31.7)	69(33.7)	0.163
	Parents intention	2.79±0.36			4(12.5)	13(40.6)	15(46.9)	
	High employment rates	2.91±0.31			16(33.3)	14(29.2)	18(37.5)	
Total		2.98±0.38						

*p<.05 **p<.01 ***p<.001

<Table 3> Self-Esteem according to the degree of Test anxiety

Division	Test anxiety		Self-Esteem		
	N(%)	Measure range	M±SD	P-value(F)	
Test anxiety	Low	91(33.6)	1-7Point	3.14±0.35	0.000*** (17.730)
	Usually	92(32.5)	8-15Point	3.01±0.34	
	High	102(33.9)	16≤ Point	2.83±0.38	

때 여학생이 36.4%, 남학생이 29.2%로 여학생이 불안감이 더 높았다. 나이는 21-22세에서 39.5%로 높게 나타났다. 학과는 간호과가 39.9%, 치위생과 27.2%로 간호과의 시험불안감이 더 높았다. 학년은 3학년이 29.2%로 다른 학년에 비해 가장 낮았다(p<.05). 종교는 있는 경우 40.2%로 없는 경우보다 높았다. 거주 형태는 부모와 함께 있는 경우 39.4%로 높게 나타났다. 입학형태는 고등학교 졸업 후 입학한 경우 39.1%로 높았으며 사회생활을 하다가 입학한 경우는 28.0%로 낮게 나타났다. 입학 동기는 부모님의 권유인 경우 46.9%로 시험불안감이 높게 분석되었다<Table 2>.

3.4 시험불안감 정도에 따른 자아존중감

시험불안감을 3단계로 구분하여 3단계별로 자아존중감의 차이점을 분석한 결과 시험불안감이 낮은 단계의 평균은 3.14, 중간단계는 3.01, 높은 단계는 2.83으로 나타나 시험불안감이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은 높게 나타났다(p<.05)<Table 3>.

3.5 일반적인 특성 및 시험불안감과 자아존중감과의 회귀분석

일반적인 특성 및 시험불안감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 결과 Y(자아존중감)= 2.793 + 0.210(성별) + 0.131(학년) + 0.160(대학선택 동기)

<Table 4> Regression analysis of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test anxiety of Test anxiety

Model	No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value
	B	-The standard error	Beta		
(Constant)	2.793	.078		36.490	.000
Gender (Female:0, Men:1,)	.210	.081	.152	2.597	.010*
Age (19-22:0 23<:1)	.121	.066	.155	1.825	.069
Subject of study (Dental Hygiene Department:0, Nursing Science Department<:1)	-.043	.048	-.053	-.900	.369
Grade (Grade 1-2: 0, Grade 3: 1)	.131	.046	.167	2.845	.005**
Religion (No: 0, Yes: 1)	-.001	.043	-.002	-.033	.974
Housing type (Parent's home: 1, Dormitory(Someone else's house: 0)	.034	.043	.044	.782	.435
Admission type (After graduating from high school:1, (After Other school experience,After Social life experience: 0)	.096	.062	.125	1.560	.120
Motivation of Choose the Department (Oneself intention: 1, Parents intention, High employment rates: 0)	.160	.048	.188	3.312	.001**
Test anxiety (Low, Usually: 0, High: 1)	-.201	.045	-.251	-4.482	.000***

*p<.05 **p<.01 ***p<.001 by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 subordination variable: Self Esteem F: 7.406 p: 0.000 R:0. 195 R2: 0.169

-0.201(시험불안감)로 분석되었다. 즉 성별은 남학생인 경우, 학년은 높은 경우, 대학선택 동기는 본인이 선택한 경우 자아존중감이 높으며, 시험불안감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5$)<Table 4>.

4. 고찰 및 결론

불안은 위협적인 상황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이며 대학생이 겪는 시험에 대한 시험불안도 취업과 진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평가를 받는 입장에서 생리적,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어 학업적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18]. 본 연구는 이러한 시험불안감을 감소시킬 방안을 파악하고자 학업량이 많은 간호과 치위생과 학생들의 시험불안과 자아존중감의 연관성의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전체 301명으로 남성 25(8.3%)명 여성 276(91.7%)명으로 여성이 대부분이었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나타낸 변수는 성별, 나이, 학년, 입학동기로 나타났으며($p<.05$) 전체적인 평균은 4점 척도에서 2.98이며 이와 김[19]의 2.82와 하[20]의 3.00과 비슷한 결과이며 신[21]의 5점 척도에서 3.1보다는 높다고 볼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남학생이 3.16으로 여학생 2.96보다 높았다. 이는 안과정[22]의 결과와 동일하다.

신[21]은 성별에 따른 취업스트레스가 여학생이 높았으며, 취업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은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즉 취업스트레스가 높은 여학생인 경우 취업준비를 하는 대학평가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아 자아존중감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나이에 대한 자아존중감은 23세 이상에서 3.06으로 적은 나이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남과 이[23]는 나이가 많은 대학생이 적은 대학생보다 행복지수가 높다고 하였으며 높은 행복지수는 자아존중감을 높여주는 지수라고 보고하였다. 나이가 많은 경우는 학교에 적응도나 교우관계가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행복지수가 높아지고 그에 따라 자아존중감도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학년은 3학년이 3.0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년이 높은 경우에는 저학년보다 어떠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대처하는 능력이 높기 때문에 [13]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자아존중감을 높인 것으로 사료된다. 입학 동기는 본인이 선택한 경우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았다. 남과 이[23]는 학과를 선택할 때 자신의 적성과 흥미대로 선택한 경우 행복지수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본인이 대학을 선택할 경우는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여 학과를 선택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되며 이는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대학을 선택할 시 성적에 따라서 또는 취업만을 생각해서 학과를 선택한다면 대학생활을 하면서 나아가 취업한 경우에도 행복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낮다고 생각되므로 자기의 적성과 흥미를 잘 고려하여 학과를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시험 불안감을 3단계로 구분하였을 때 높은 단계의 시험불안감을 기준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낸 것은 학년으로 나타났다($p<.05$). 학년은 3학년이 29.2%로 다른 학년에 비해 시험불안이 가장 낮았다. 이는 유와 양[24]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다. 유[13]는 학년이 낮은 경우 스트레스 대처방안이 낮다고 하였다. 시험불안도 스트레스의 한 요인이며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능력이 적은 경우는 시험불안도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후배간의 친화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학교생활에 경험이 있는 선배들과 시험이나 학교생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평가에 대한 준비를 한다면 어느 정도의 시험불안은 해결되리라 생각한다. 자아존중감과 시험불안감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시험불안감을 3단계로 구분하여 3단계별 자아존중감의 차이점을 분석한 결과 시험불안감이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p<.05$).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유능한 사람으로 여기고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능력이 높으며 스트레스 상황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10]. 그러므로 시험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능력이 높을 경우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 한다고 해석된다. 일반적인 특성 및 시험불안감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 결과 $Y(\text{자아존중감}) = 2.793 + 0.210(\text{성별}) + 0.131(\text{학년}) + 0.160(\text{대학선택 동기}) - 0.201(\text{시험불안감})$ 로 분석되어 성별이 남학생인 경우, 학년은 높은 경우, 대학선택 동기는 본인이 선택한 경우 자아존중감이 높으며, 시험불안감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은 낮추는 요인으로 나타났다($p<.05$).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대학생들의 시험불안은 자아존중감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므로 교육과정에서 보다 나은 학문적 환경을 조성하고 배려와 사랑으로 친밀감 있게 학생지도를 함으로서 시험불안을 낮

춤과 동시에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로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하지 못한 점과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설문한 내용으로 일반화하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이에 대한 다양한 후속연구들이 더욱 심도 깊게 이루어져 본 연구에 대한 타당성을 재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1] Dong-Ho Yang, et al, "Test Anxiety Investigation of Students in Oriental Medicine College by Using Korea's Test Anxiety Inventory,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ymptom Check List-90-Revision", *Journal of Oriental Neuropsychiatry*, Vol. 19, No. 1, pp. 55-70, 2008.

[2] Y. J. Ko, "Effects of Aroma Inhalation Method on Test Anxiety, Stress Response and Serum Cortisol in Nursing Students",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 20, No. 4, pp. 410-418, 2013.

[3] Y. S. Kim, et al, "Effects of Brain Respiration Program on Test Anxiety and Depress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ublic Health Nursing*, Vol. 23, No. 2, pp. 251-261, 2013.

[4] S. C. Cho, "Concept and Theory of Test Anxiety", *Korean Association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Vol. 2, No. 1, pp. 3-10, 1991.

[5] S. I. Im, et al, "Meta-analysis Study of TEST Anxiety on a Domestic and International level",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27, No. 3, pp. 529-553, 2013.

[6] J. Y. No, "The Relation between Test Anxiety and Mental Health in Adolescents",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Vol. 16, No. 1, pp. 458-466, 2005.

[7] E. Y. Lee, et al,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Mindfulness in Test-anxiety", *Stress*

Research, Vol. 16, No. 2, pp. 79-84, 2008.

[8] J. H. Lee, et al, "The effects of self-esteem, family support and perceived health state on the stress of adult examine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 16, No. 2, pp. 178-180, 2007.

[9] M. Rosenberg,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Vol. 16, pp. 1343-1349, 1965.

[10] M. L. Kim, "Friendships and Self-esteem in Adolescence", *Chonnam University*, 2002.

[11] S. R. Lim, et al, "Effect of attribution disposition and self-efficacy on test anxiety in selected dental hygiene students",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Vol. 11, No 3, pp. 313-323, 2011.

[12] H. J. Choi, et al, "Impact of Self-Esteem and Test Anxiety on Mental Health in students of Dental Hygienics",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chool Health Education*, Vol. 13, No. 1, pp. 77-87, 2012.

[13] E. Y. Yu, "Self-Esteem and Stress-Coping Strategies of the College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Public Health",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9, No. 6, pp. 225-236, 2009.

[14] C. D. Spielberger, et al, "Preliminary manual for the test anxiety inventory. CA: Palo Alto", *Consulting Psychologist Press*, 1980.

[15] M. J. Kim, "Prüfungangst und andere psychosoziale Merkmale - ein Beitrag zur interkulturellen Diagnostik", *Educational Psychology*, Vol. 4, No. 1, pp. 91-110, 1990.

[16] A. Y. Im, "relationships among self-determined solitude, personality and psychological health", *Korea Psychological Association*, Vol. 31, No. 4, pp. 993-1021, 2012.

[17] C. Y. Park,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Leadership and Self-Esteem of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 53, No. 2, pp. 137-149, 2014.

[18] W. H. Choi, et al, "The differences of test anxiety as a function of perfectionists in high

schoolstudent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8, No. 1, pp. 23-35, 2014.

[19] S. H. Lee, “Impact of Self-Esteem and Test Anxiety on Mental Health among Nursing Students Taking the National Examination for Registered Nurses” Korean Academy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6, No. 12, pp. 177-185, 2010.

[20] H. J. Ha, “Drinking Problems, Stress, Depression and Self-esteem of University Students”, Korean Society of Adult Nursing, Vol. 22, No. 1, pp. 182-189, 2010.

[21] S. H. Shin, “A Study on Employment Stress and Self-esteem of Health College Students”,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Vol. 12, No. 3, pp. 217-225, 2012.

[22] H. J. An, “Self-Esteem and Social Anxiety of Nursing Student”,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2, No. 2, pp. 224-228, 2006.

[23] M. H. Nam, et al, “Factors Influencing Subjective Happiness Index of Health Behavior, Self Esteem and Major Satisfaction by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10, pp. 363-374, 2014

[24] H. S. You, et al, “The Influence of Self-resilience and Academic Self-concept on Test Anxiety in Undergraduates”,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 21, No. 3, pp. 275-282, 2014.

권 연 숙(Youn-Suk Kwon)

[정회원]



- 2003년 2월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5년 6월 :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수료)
- 2013년 3월 ~ 현재 : 영남외국어대학교 간호과 조교수

<관심분야> : 간호융합, 진료지원 융합, 기타 의과학 관련

저자소개

윤 성 옥(Sung-Uk Yoon)

[정회원]



- 2003년 8월 : 대구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위생과학과 (보건학석사)
- 2013년 8월 : 대구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보건학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김천대학교 치위생학과 교수
 <관심분야> : 진료지원 융합, 보건행정 융합, 기타 의과학 관련